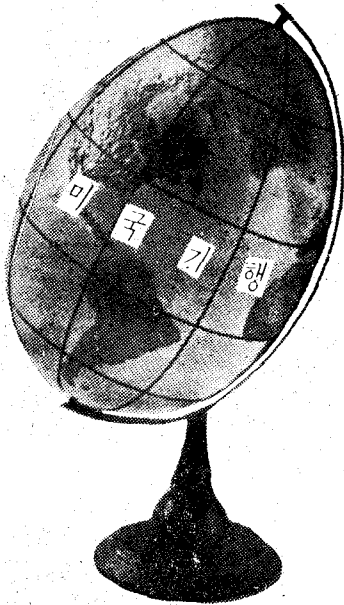


미 국 기 행



원 용 태
<대한사료기회부장>

6. 낫익은 서부지구를 돌아보고

미국이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지역에 따라서는 기후와 풍토가 다르며 또 주(州)에 따라서도 법률과 세금까지도 달라 그 일부를 짧은 시간에 겨우 보고와서 미국을 말한다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이야기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방문 길에서 대 도회보다도 주로 중소도시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은 서울보다도 큰 거리라는 것 뿐이지 도회지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별차이가 없다고 보겠다. 수 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바빠 지나다니고 밀물처럼 물려오는 자동차의 홍수, 깨끗하고 높은 빌딩들이 서 있는 거리와 저저분한 뒷골목등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들이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와 전통은 도회지보다

중부와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특히 잘 지켜지고 있었다. 농촌도 소득은 높으나 절대로 낭비를 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소득으로 최첨단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보다도 더욱 풍요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심도 많다고 생각했다. 아메리카대륙이 발견된 이래 개척정신이 투철한 민족들이 황야에서 인디안들과 싸우며 이룩한 그들의 정신은 그대로 미국의 전통이 되었고 매사에 그들의 자주적인 면을 느끼게 한다. 농민들은 토목 일부터 종자개량에 까지 그들 스스로가 직접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농가는 자기밭의 일부를 시험밭으로 하여 여러종류의 종자를 심고 토양과 자기기술 또 비료와의 관계에 까지도 수확이 많은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5년이상 싹을 시험을 하고 있었다.

각 기관에서도 농업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농업의 증산에 대한 의욕은 굉장한 것이었다. 내가 미국에 처음 내렸을 때 밤거리를 걸어보고 낭만적인 이국의 정서를 기대 했다가 난장판같은 소란으로 실망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요일과 공휴일은 그 소란은 어디로 갔는지 길거리에는 교묘한 정숙만이 있다. 모두 교회에 가거나 집에서 가족들과 있기 때문이다.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와 공중도덕, 예의는 잘 지켜지고 있다. 참으로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들 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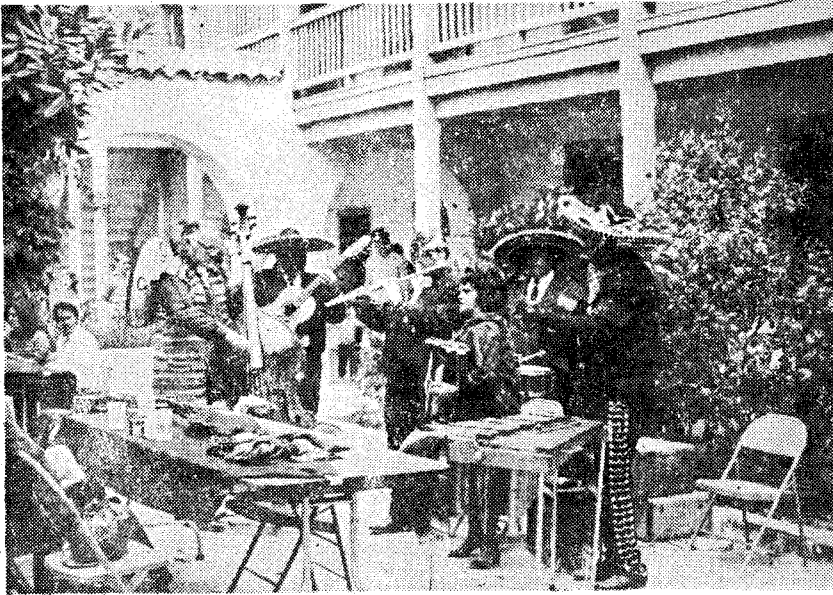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외국과의 경쟁에 이기는 오늘의 번영을 갖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시설의 합리화와 기술혁신등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강한 책임감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와 같이 년공(年功)서열로서 가만히 있어도 승급하여 정년퇴직까지 그자리를 고수하게 되는 월급쟁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늘날 유행하는 경영의 합리화는 미국에서는 생존경쟁이 치열하여 능력이 인정되면 고위(高位) 직위로 선임되고 능력이 없으면 감봉되고 결국은

감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자기의 능력개발에 몰두하여 심신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영하는 미국에서도 커다란 고민은 있었다. 흑인들의 문제이다. 흑인은 미국 인구의 10%라고 알고 있었으나 어디를 가나 흑인이 많이 눈에 띄었다. 흑인들의 인종차별 기사를 읽고는 몹시 분개 한적도 있었다. 살빛이 검다 뿐이지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은가! 인간인 이상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영국 식민지하의 아메리카 개륙에서 남부의 목화 재배업자들이 극심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사들이었는데 이들이 노예를 사들인 시초는 아니었다. 남미에 식민지를 두었던 폴투갈이나 스페인 쪽이 먼저인데 중남미에서 흑인문제가 미국만큼 시끄럽지 않은 것은 라틴계와 앵글로색슨의 민족성의 차이에도 이유가 있다. 스페인등은 일찌기 아프리카 민족에게 정복당한 일도 있고 해서 살빛의 차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웠으며 흑인과의 혼혈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앵글로색슨은 혈통이라든가 계급에 대해서 편 엄격하였다. 혼혈을 죄악시켰으며 노예는 노예라는 엄연한 구별을 지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령을 내린지도 100년이 지났으며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민권법도 흑인문제에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지만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백인은 부자이고 흑인은 가난하다. 백인이 사는 집은 페인트 칠이 깨끗하고, 거리도 깨끗하나 흑인들의 집은 칠이 벗겨지고 불결하다. 그리고 거리에 대낮에도 일하지 않는 흑인들이 서성대거나 멍청히 앉아 있다. 백인들이 미래의 향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데 비해 그들은 활력이 없다. 미국에서 일손이 모자라 절절때고 있는데 흑인을 기피하는 현상은 그들이 책임감 있게 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흑인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다. 흑인문제는 백인 흑인 모두 반성할점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20여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자유시간을 가

지게 되었다. 최종 목적지인 워싱턴을 떠나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 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3시간을 자동차로 달리면 몬트레이라는 작은 휴양도시가 있다. 그 곳에서 생활 터전을 잡은 친구의 안내로 이곳 저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몬트레이로 가는 고속도로는 그대로 관광도로이다. 오른쪽은 탁트인 시야에 태평양의 푸른물결이 길아래의 절벽 밑까지 밀려 왔다, 밀려가며 한가로이 바다표범이 헤엄치며 놀고 있었다. 군배 군데 솟은 바위에는 손바닥만한 넓적한 전복들이 붙어 있었으나 천연 보호물로 지정되어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다. 만일 잡는 사람이 발견되면 100\$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한다. 먹음직한 전복들이 있는 곳을 그냥 지나치자니 싱싱한 전복회 생각이 여간 아쉽지 않다. 도로의 왼편으로는 끝이 없는 넓은 들에 딸기 밭이 펼쳐져 있는데 스프링클러로 물을 뿜어주고 있어 참으로 깨끗하게 잘 재배되고 있었다. 이 딸기는 동부의 여러도시의 식탁에 까지도 비행기로 운반되며 그 딸기를 따기 위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중의 대부분이 시간제로 일하는 알바이트 학생들이며 동양인이 꽤 많았고 한국인도 여러명 만날 수 있었다. 여자들은 딸기를 따고 남자들은 포장하며 추력에 실고 있었다. 그 옆에 넓은 터에는 울긋 불긋한 최신형의 승용차들이 사람수만큼 주차해 있는데 이들이 타고온 차들이란다. 언뜻보면 멋진 자가용을 타고 피크닉을 나온 한가한 풍경같이 보인다. 자가용을 타고 노동을 하러 오다니 미국다운 풍경이다. 몬트레이는 인구 약 5萬의 도시이나 한국인이 1,500여명이나 살고 있었으며 미국서부지방의 신병훈련소가 있었으며 또 해군대학도 있다. 마침 해군대학에 유학은 한국해군장교들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만난 그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니 여간 반갑지 않았다. 또 그 곳에 군사언어학교가 있어 미국 군인으로 외국에 파견되는 군인들은 그곳을 거치게 되었는데 한국어과도 있다. 한국인 교수가 20여명으로 대부분 20년간을 그 곳에서 봉직한 사람들이며 한국의 역사와 풍속등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



←판초 모자를 쓰고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굴지의 통조림 공장이었다한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스타인벡이 쓴 "포도의 계절"에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공장을 소재로하여 썼다는 것이다. 과거의 번창과 성업을 말해주는 듯 규모도 크고 웅장하였으나 지금은 생선이 잡히지 않아 폐쇄된 공장의 주위에는

려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경의를 표하고 싶으나, 그들의 2세들은 전혀 한국 말을 하지 못한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남의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꽤 섭섭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점을 느끼었는지 1주일에 한번씩 모여 한국어 강습을

시작했다니 늦은감은 있으나 꽤 다행한 일이다. 이곳 해안지방에 거대한 공장이 폐허화 되어 방치되어 있었다. 호안시설이 잘되어 직접 바다에서 나쁜 고기들이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잘건축된 건물이다. 이공장은 80여년 전까지는 미국에서

잡초만 우거져 다시한번 흥망성쇠의 과거지사를 생각하니 무엇인지 모르는 쓸쓸한 감을 더 해주었다.

방문한 시기가 주말일지라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곳을 찾아 먼곳에서 부터 자동차로 주말여행차 해안도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생존에 애용하였다는 카

원숭이를 훈련시켜→ 돈을벌고있다.



벨 비취는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이 해안가의 드라이브 길에는 양옆에 노송들이 우거져 있어 우리나라 동해안에 온 착각마저 들어 낯설지가 않아 여러번 돌아보았다. 이 곳을 지나 유명한 세븐틴 마일이라는 곳은 미국부호들의 별장지대다. 이 곳에 들어갈려면 입구에서 10\$을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었다. 이곳에 자리잡은 어느 교포의 초청으로 나그네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외길도로는 모두 포장되어 있고 넓은 천연림속에 산재하여 있는 조밀한 건물들은 모든게 한포기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이곳에서 본 몇가지 인상에 남는 거리의 풍경을 적어보자. 미국에는 어린이를 위한 자선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다. 특히 캔디 테이가 있다. 울긋불긋한 웃음 입은 피에로 부부가 이곳 공원에 모이는 어린이를 위하여 함께 웃고 뛰여 놀며 캔디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유모러스한 이 풍경은 여유있는 미국사람들의 습관이였다.

판초 모자를 쓰고 밴드에 맞추어 노래를 하는데 그 멜로디가 귀에 익은 베사메 무쵸다. 기웃거리 보니 바로 노천식당이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참 바라보니 멕시코인이 이곳에 휴일을 이용 원정와서 거리에서 식당을 차리고 즉석에서 멕시코 음식을 만들어 팔고있는 것이다. 특유한 웃음을 웃어가며 멕시코 여인은 노래와 춤을 추는 이들이야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장사도 하고 관광을 하는 일조이석의 상흔은 바로 일본사람 다음가는 상행위라고 미국사람들은 말하고 있었다.

“돈 버는 원숭이”라는 간판이 쓰여 있고 동구렁게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어른 아이들의 웃음 속에 바이오린을 열심히키는 불구의 사나이가 원숭이 목에 걸린 줄을 발에다 묶고 있다. “이 원숭이는 돈을 구별할줄 압니다. 돈을 받으면 어

러분에게 그만큼 서비스 하여드립니다”라고 원숭이는 바삐 왔다 갔다하며 허리에 찬 돈주머니에 연실 이곳 저곳에서 주른 돈을 받아 넣고 있었다. 그러나 이놈의 행동을 보소. 1전을 주니 그냥 주머니에 넣고 10전을 주면 악수를 하고 25전을 주면 손 잔등이에 키스를 하며 50전을 주니 준사람 붙에다 키스를 하여 주지 않는가? 참으로 훈련이 잘되어 있었고 이렇게 길드리기에 애쓴 불구자는 바로 월남전에서 부상당한 상이용사였다. 또하나 동물이 잘 훈련되어 있는 것을 보자 이곳의 자가용 비행장 대합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대합실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데 “헬로”하고 누가 인사를 한다. 답을하지 않으니 또 “헬로”한다. 그다음에 “하우 아유”하지 않는가, 정확히 베이스 소리로 인사를 하였는데 암만 둘러보아도 여자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새장속에 앵무새가 있을 뿐이다. 짐을 들고 그 앞을 지나니 “굳 바이”한다. 여태까지 말한 것이 이 앵무새였다. 나도 “굳 바이”하니 “쏘롱”한다. 미국에는 이렇게 훈련된 동물이 여행에 지친 나그네들을 즐겁게 하는 경우가 많다.

짧은 일정이나마 미국방문 기간중 내가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여태까지 알고있었던 편견적인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거만하고 낭비가 심한 나라가 아니고 선조가 흘린 피와 땀에서 이루어 놓은 터전을 그 자손들이 점소하고 개척하며 건설하여 보존하며 지상의 낙원을 이룩 할려고 노력하는 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피와 땀을 더흘리며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디어 우리조상이 물려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자손에게 미래의 행복을 영유하도록 우리대에서 더 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새삼스러히 다짐하며 귀국길의 비행기에 올랐다. <끝>